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감옥의 정치경제적 기능

李 昇 鎬

(建國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 목 차 >

- | | |
|------------------------|--------------------------|
| I. 들어가는 말 | 1. 감옥개혁운동 |
| II.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감옥 | 2. 새롭게 도입된 감옥운영체계 |
| 1. 16세기 이전까지의 감옥 | 3. 18, 19세기 감옥의 정치경제적 기능 |
| 2. 16세기의 사회현상과 감화원의 성립 | IV.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감옥 |
| 3. 감화원의 정치경제적 기능 | 1. 감옥에서 교도소로 |
| III.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감옥 | V.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소위 교도소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감옥(監獄, prison)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오늘날 행형의 중심적 기제로 자리잡고 있지만, 그것의 역사는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 행형사가(行刑史家)들의 지적이다. 즉, 먼 옛날의 전래품(傳來品)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성립과 더불어 고안된 근대적 형벌기제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감옥은 단순히 형사사법적 기능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나름대로의 정치경제적 기능을 부담해 왔다고 한다. 사회의 한 쪽 귀퉁이에 내쳐진 폐쇄공간이 알게 모르게 기반사회의 정치경제에 관련되어왔다는 이야기인데, 일찍이 루체(Rusche)와 키르호하이머(Kirchheimer)가 경제적 관점에서 감옥의 기능을 분석한 이래,¹⁾ 여러 학자들이 이러한 거시적 감옥연구에 나름의 말을 보태어 왔다. 그 결과 감옥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나름의 정치경제적 담론이 형성되었는 바, 이 글은 이러한 일련의 논설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

1) Rusche G. and O. Kirchheimer, Punishment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1968 참조.

무래도 그 동안 우리 학계가 주로 의지해왔던 형사사법적 분석만으로는 감옥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리라는 생각에서 거시감옥학의 논의들을 소개하려는 것인데,²⁾ 형식은 감옥의 정치경제적 기능을 시기에 따라 역사적으로 추상(追想)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II.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감옥

1. 16세기 이전까지의 감옥

사람을 구금하는 장소로서의 감옥은 고대에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감옥이 형벌을 부과하는 장소로 이용된 것은 아니었고, 단지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이나 태형(台刑), 사형(死刑) 등의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대기 상태에 있는 유죄인들을 임시로 구금하는 장소일 뿐이었다.³⁾ 다만 몇가지 자료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추측해 보건대, 예외적으로 몇몇 곳에서는 형벌부과의 수단으로 사람을 구금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던 듯은 싶다.⁴⁾ 그러나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현상이 드물었으며, 감옥은 일시적 구금장소로서만 이용될 뿐이지 형벌부과의 기제로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로마시대의 법률가인 울피아(Ulpian)의 다음 설명이다.

“지방 행정관들이 사람을 감옥에 감금하는 형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불법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형태의 형벌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옥은 단지 임시적 구금(temporary detention)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지, 그 자체 형벌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⁵⁾

아울러 이러한 로마의 법원칙은 중세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어서, 1268년에 발간된 브랙튼(Henry de Bracton)의 「De legibus et consuetudinibus Angliae」는 감옥을 판결받기 전까지 유치해두는 장소로 기술하고 있다.⁶⁾ 또한 비교적 로마법의 영향을 적게 받은 영국에서는

2) 지금까지 감옥에 대한 연구는 크게 나누어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감옥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고, 또 하나는 감옥에 대한 거시적 분석이다. 감옥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란 수형자와 간수의 감옥내에서의 가치, 태도 및 역할이라든가 그들간의 관계 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조직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감옥에 대한 연구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에 대해 감옥에 대한 거시적 분석은 거시사회학(macrosociology)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 졌다. 이에 의하면 감옥은 전체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며, 그 상호간의 영향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James B. Jacobs는 “감옥은 전체 사회의 구성부분으로서 그 기초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 즉, 전체사회의 변동은 당연히 감옥사회의 변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그 역으로 감옥을 연구함으로써 전체사회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고, 사회내의 권력분배, 계층구조, 법적 체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라고 한 바 있다(James B. Jacobs, “Macrosociology and Imprisonment”, in David F. Greenberg(ed.), *Correction and Punishment*, London, 1977, p. 104).

3) Melossi, D. and M. Pavarini, *The Prison and the Factory*, London, 1981, p. 2

4) 예를 들어 앗시리아(746-539 B.C.)에서는 절도범이나 탈세자 등을 구금형에 처했다고 한다(Edward M. Peters, “Prison Before the Prison -The Acient and Medieval Worlds”, in Noval Morris and David J. Rothman (eds.), *The Oxford History of the Pris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 9).

5) Edward M. Peters, *ibid.* p. 20. 아울러 이러한 내용은 Justinian 1세의 *Digesta*(533년)에도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6) 물론 중세에도 예외적으로 구금이 형벌수단으로 사용된 적은 있었다. 대표적으로 카롤리나 형법전은 제 157조에서 가벼운 절도범에 대해 단기간의 구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검토할 때, 구금은

감옥에의 구금이 형벌의 일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유럽대륙에 전주어 비교적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영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감옥은 여전히 왕실법원의 판결시까지 피고인을 구금해 두는 장소로 이용되었을 뿐이라고 한다.⁷⁾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16세기까지 계속되었는데, 중세시대에 감옥에의 구금이 형벌방법으로 사용되지 못한 까닭에 대해 파슈카니스(Pashukani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세적 형사제재의 관념하에서는 형벌은 감옥형, 즉 일정한 양의 자유의 박탈이라는 형태를 통하여 실행될 수 없었다. 미리 결정되어 있는 추상적 자유의 한 부분을 억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게 할 수 있다는 관념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든 구체적 형태의 사회적 부가 '시간으로 측정된 인간노동'이라는 추상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환원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봉건주의하에서는 시간의 박탈이라는 것이 범죄에 대한 응보적 등가물로 성립되지 못하였으며, 그 대신 당시 가치있는 자산으로 여겨졌던 생명, 신체의 온전성, 화폐, 신분의 상실 등이 범죄의 등가물로 취급되었던 것이다.”⁸⁾

2. 16세기의 사회현상과 감화원의 성립

16세기에 들어와 중세의 농업경제가 붕괴되고 초기 자본주의가 확립되면서,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유랑자, 결식자 등으로 전락하여 도시 주변을 떠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큰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당시의 지배계층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처음에는 그러한 자들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대처하려 하였는 바, 예를 들어 헨리 VIII세(1509~1547)는 범죄자 및 부랑자들에게 극형에 해당하는 엄한 형벌을 부과하여 통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경제적 지배세력이었던 신흥 자본가들은 그들을 엄한 형벌로 처단하기보다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노동을 시키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즉, 자본의 원시적 축적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노동력을 범죄인 및 부랑자로부터 얻어내고자 계획했던 것이다. 아울러 자본주의는 각 개인의 노동습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태만하고 게으른 자들을 한 곳에 수용하여 노동의 습성을 익히게 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곳곳에 감화원(感化院, House of Correction)이라는 이름의 수용소가 세워졌는 바, 1553년에 에드워드 VI세에 의해 브라이드웰(Bridewell)에 설립된 것이 최초라고 평가된다.⁹⁾

신세형에 대한 부차적인 의미밖에 없었고, 감옥은 재판이나 형집행의 대기장소로서 기능한 것으로 파악된다(박상기,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90-91면 참조).

7) Ralph B. Pugh, "Imprisonment in Medieval England", in John Bellamy, Crime and Public Order in England in Later Middle Ages, Routledge and Kegan Paul, 1973, ch. 6 참조.

8) E. B. Pashukanis, Law and Marxism : A General Theory, London, 1978, pp. 168-169.

9) Bridwell에 설립된 감화원은 의무적인 노동과 규율에 의해 수용자들을 개선하고, 외부에 있는 부랑자와 나태자들을

또한 1572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소위 구빈법(救貧法, Poor Law)을 제정하여 감화원의 설립을 원조하였고, 그 결과 17세기 초까지 유럽전역에 감화원이 설립되었는데,¹⁰⁾ 이러한 감화원은 범죄인들만 수용한 것이 아니라 범죄기록이 없는 유랑자, 결식자 등도 모두 수감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감옥과 그 성질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일시적 구금장소로서의 성격을 탈피하여 구금을 본래적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에서 오늘날 감옥의 초기단계로 설명되고 있다.

3. 감화원의 정치경제적 기능

16세기의 감화원은 당시의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 순수 경제적 차원에서 자본의 원시적 축적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고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루체와 키르흐하이머(Rusche & Kirchheimer) 그리고 멜로시(Melossi) 등은 16세기의 감화원이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의 기능을 수행해 나갔다고 설명한다.

첫째, 순수 공리적 차원에서 자본가들에게 부족한 노동력을 현실적으로 제공해 주었다. 루체와 키르흐하이머는 1596년에 암스테르담에 설립된 노역소(勞役所)를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당시에 암스테르담에서는 무역업이 번창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하였다. 그러나 그 반면 사회내의 절대적 인구수는 감소해 가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의 신흥 네덜란드 자본가들은 노동력 공급을 위해 고가의 노동비용을 치루어야 할 형편에 있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여서든지 사회내 노동력의 낭비를 피하고 그것을 적절히 이용, 통제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대두되었던 것이며, 이것이 곧 형벌부와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를 야기시켰다.”¹¹⁾

둘째, 감화원은 직접적으로 그 안에서의 노동력 착취의 역할을 담당한 것 이외에, 내부의 무료 또는 값싼 노동력을 통하여 외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가격 저하도 유도하였다고 설명된다. 즉, 신흥 자본가들은 감화원의 노동력을 담보로 하여 노동시장의 임금을 가능한 한 인하시키려 노력했다는 것이다.¹²⁾

셋째, 감화원은 자본주의 발전의 전제조건인 노동의 습성, 규율을 수련시키는 역할을 담당한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본주의의 유지, 발전에 기여했다는 설명도 제시된다. 이와 관련하여 멜로시는 암스테르담 노역소의 경우, 앞서 언급한 순수 공리적 차원의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동 제도의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력을 통제, 교육 및 훈련시키어 새로운 조건의 규율에 적응토록 함으로써 토지로 부터 추출당한 농민들을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키기

규제하였으며, 자체적 노동을 통해 자급자족을 확보하였다고 한다(Melossi D. and M. Pavarini, op. cit., p. 14).

10) 1576년까지 영국 각지에서 감화원이 설립되었고, 1596년에는 암스테르담, 1613년에는 뉘백, 1614년에는 베른에 역시 감화원이 설립되었다.

11) Rusche G. and O. Kirchheimer, op. cit., p. 42

12) Rusche G. and O. Kirchheimer, ibid., pp. 43-45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¹³⁾

그리하여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16세기의 감화원은 초기 자본주의의 성립에 철저히 요구되었던 노동력 충당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사회통제기제로서의 역할은 오늘날의 감옥과 비교해 볼 때 그리 큰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당시에 감화원 구금이 형벌제도의 주축이 아니었고, 오히려 형벌로서는 사형, 유형, 신체형 등이 여전히 많이 행해졌다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바, 이렇게 당시의 감화원이 주된 형벌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점은 곧 동 시설에 대한 국가의 공적 개입도 그리 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¹⁴⁾

III.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감옥

1. 감옥개혁운동

16세기와 17세기의 감화원은 표면상 수용자의 개선을 목표로 내세우긴 했지만, 비위생적인 여건, 생활필수품의 부족, 간수들의 부패 등 불합리하고 열악한 점들을 많이 지니고 있었다. 게다가 성·연령·기타 조건들에 따른 수용자의 분리가 없었고, 간수들은 따로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들이 지불하는 요금(fee)에 의해 생활하고 있었다. 결국 감옥의 상황은 비참했고, 경제적 능력의 차이에 따른 차별대우가 극심하여 만기일이 되어도 감수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수용자는 계속 구금되고, 반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수용자는 형집행 중에도 수시로 감화원을 드나드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¹⁵⁾

그리하여 이러한 비참하고 부패한 감화원, 즉 감옥의 상황은 18세기의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신랄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졌고, 곧 감옥개혁운동을 촉발시켰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13) Melossi D. and M. Pavarini, op. cit. p. 21. 아울러 콧세와 키르호하이머도 감화원의 이러한 역할을 인정한다. 특히 그들은 감화원이 내부의 수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노동의 습관을 체득시킬 뿐 아니라, 나태와 불만에서부터 비롯된 일탈행위자들을 감화원에 구금시킴으로써 감화원 밖에 있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사회에 필요한 노동습관을 따르도록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역할까지 하였다고 설명한다(Rusche G. and O. Kirchheimer, op. cit., pp. 30-33).

14) 그리하여 감화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 간수들의 자치와 재량의 여지가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사회통제기제로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따라서 국가가 감화원의 관리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대부분의 사항들이 자치에 일임되었다는 것은, 후에 살펴 볼 감옥개혁운동이 현실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 요인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15) 예를 들어 Newgate 감화원의 경우, 음식·양초·빨감 등도 수용자가 비용을 내고 구입해야 했으며, 신입수용자에게 차꼬를 채워넣고는 특별비용(special fee)을 지불하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는 관행도 있었다(Scott Christianson, With Liberty for Some,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8, p. 17 참조). 아울러 신입수용자들은 동료 수용자들에 의해서도 제화를 갈취당했는데, 한 방문객의 표현에 의하면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야수같이 생긴 악한들이 신입자를 둘러싸고 머리 꼭대기에서 발 끝까지 살살이 살피면서 노상강도처럼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고 한다(Anthony Babington, The English Bastile : A History of Newgate Gaol and Prison Conditions in Briton 1188-1902, New York, 1971, p. 71 참조).

하워드(Howard)였는데, 그는 1773년에 보안관에 임명되어 베드포드(Bedford) 감옥의 실상을 보고한 후, 유럽각국의 감옥을 탐방하고, 그 실상을 폭로하여 개혁을 주장했던 것이다.¹⁶⁾

하워드에 의해 이끌어진 감옥개혁운동은 당시 사회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다음 두가지가 꼽혀진다. 첫째, 18세기에 유행처럼 서구사회를 휩쓸었던 계몽주의주의 사상과 휴머니즘 정신이다. 즉, 휴머니즘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인간적인 것들에 대한 개혁의지를 갖게 했으며, 그 결과 감옥의 비참한 상황이 폭로되자 곧 그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개혁운동이 웅원되었던 것이다. 둘째, 당시의 감옥이 사회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오늘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가졌다는 점도 감옥개혁운동 성공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당시 국가는 감옥의 유지, 운영에 대해 오늘날 행해지는 것과 같은 수준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시키지 않았던 바, 그 반향으로 감옥개혁운동에 대해서도 국가는 크게 개의치 않고 방임함으로써 동 운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¹⁷⁾

2. 새롭게 도입된 감옥운영체계

어떻든 하워드 등의 감옥개혁운동은 종래 난무했던 감옥내의 부정, 부패와 비참한 생활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개혁운동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게 되자 계몽주의자들은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에 의거하여 범죄인을 개선시키겠다는 사고방식이 적극적으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감옥개혁도 범죄인 개선에 적합한 감옥의 설비, 운영을 확립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소위 고독구금(Solitary Confinement)으로 불리는 새로운 수용시스템이 도입된다.

우선 고독구금은 “고독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개선을 낳는다”라는 주장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수인에게 고독한 생활환경을 부과하는 구금형태이다. 이미 1779년에 블랙스톤(Blackstone)과 에덴(Eden)이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수형자를 낮에는 중노동에 집단적으로 종사시키고 밤에는 각기 독방에 구금하여 고독을 통해 개선을 도모하려는 법안을 기초한 바 있다고 한다.¹⁸⁾ 그러나 동 법안은 빛을 보지 못하였고, 고독구금이 시범적이나마 실행된 것은 1790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월넛감옥(Walnut Street Jail)에서였다. 즉, 16개의 독거감방(후

16) John Howard는 1779년에 「감옥의 사정, The State of the Prison」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감옥개혁을 주장하였는데, 그의 개혁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① 감옥은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특히 감옥 내에서 수많은 수형자가 질병으로 사망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② 감옥은 징벌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교화를 도모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분리수용이 필요하다. ③ 감옥내 강제노동은 수형자들에게 노동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여 교화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Eric Stockdale, "John Howard and Bedford Prison", in John C. Freeman (ed.), *Prison Past and Future*, London, 1978, pp. 15-24 참조).

17) 특히 영국에서는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가가 감옥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18) 소설 「Tom Jones」의 저자이고, 1750년대에 미들섹스 카운티에서 치안판사를 역임한 헨리 필딩(Henry Fielding)도 독거구금 형태의 자유형을 신종의 형벌방법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고독과 금식’을 통해 수인들을 교화시키자고 주장한 것이다(Vivien Stern, *A Sin against the Future : Imprisonment in the World*,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8, p. 16 ; Michael Ignatieff, *A Just Measure of Pai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p. 46 참조).

에는 30개)이 감옥 내에 만들어져서 특히 흉악한 수인들이 수용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월넛 감옥도 모든 수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독거구금을 실행한 것은 아니었으며, 독거구금이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세기에 미국에서 실행된 분리제(Separate System)와 침묵제(Silent System)에 이르러서였다.

먼저 분리제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인을 철저히 독거시키는 구금체계인데, 1829년에 필라델피아의 동부감옥(Eastern State Penitentiary)에서 실시되었다. 웨이커 교도들의 영향하에¹⁹⁾ 운영시스템을 마련한 이 감옥은 설계에서부터 수인들이 감방과 작업장 어디에서든 간수와 특별방문객 이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구상되어 있었다. 원래는 수인들에게 작업도 시키지 않도록 계획되었으나, 후에 계획을 변경하여 작업을 부과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작업은 혼자 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그 종류도 바느질·재단·목공·양화 등과 같은 단순 수공업에 한정되었다.

이에 반해 1825년에 뉴욕주의 오번감옥(Auburn State Prison)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침묵제는 수형자를 밤에는 독거구금시키지만 낮에는 공동작업장에서 집단으로 작업시키는 운영체계이다. 물론 공동작업 중에는 철저히 침묵을 강요하며,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침묵제로 불리운다. 아울러 공동작업이기 때문에 작업의 종류는 공장용 작업(institutional work)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분리제에서보다는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양 시스템은 격렬한 논쟁을 통해 상대를 비방하였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분리제가 수인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낮이나 밤이나 일하고 먹고 자는 모든 것을 각자의 감방과 작업장에서 홀로 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침묵제는 수인을 밤에는 각자의 감방에 홀로 구금시키지만 낮에는 함께 일하도록 하며 단지 침묵만 강요한다는 점이다.²⁰⁾ 결국 분리제가 철학적·종교적 입장에 충실한 운영체계라면 침묵제는 작업의 생산성 향상까지를 도모한 운영체계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뿌리를 고독구금 사상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차없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3. 18, 19세기 감옥의 정치경제적 기능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는 소위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즉, 자본주의

19) 펜실바니아는 그 자체가 웨이커 교도들에 의해 건설된 주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 이주한 청교도들은 웨이커를 위험한 종파로 취급하여 웨이커 교도들의 이주를 막았는데(심지어 한번 걸리면 귀 하나 자르고, 두 번 걸리면 귀 하나 또 자르는 식의 법이 실행되기도 하였다), 윌리엄 펜(William Penn)이라는 웨이커 교도가 펜실바니아를 사들여서 그들만의 주를 건설하였다는 것이다(엘런 브링클리, 미국의 역사 1, 비룡출판사, 1998, 57-59면 ; Scott Christianson, op. cit., pp. 41-42 참조).

20) 양 체계의 격렬한 논쟁을 거친 1850년대 이후에 분리제는 유럽에서 우세를 점하고, 침묵제는 미국에서 우세하게 되었다(양 체계의 논쟁에 대해서는 David J. Rothman, "Perfecting the Prison, United States, 1789-1865", in Noval Morris & David J. Rothman, The Oxford History of the Pris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 105-111 참조).

체제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자본의 축적과 발전을 위해 하부구조를 만들어 내는 부문에 국한되어 있었을 뿐 그 이상 적극적인 통제와 조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여 국가는 단지 하부구조를 수립함에 있어서 사회질서를 보장하고 생산·분배·교환의 제조건을 규제하며 성숙한 시장경제 체제의 발전에 요구되는 구조적 지주만을 제공해 주도록 역할이 한정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산업혁명의 심화와 더불어 범죄·알코올 중독·매춘·부랑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양산되자, 사정은 달라졌다. 즉,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발전을 위해 국내인구를 감시하고 훈련시키며 안정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통제는 점차 관료화되고 집권화되었다.²¹⁾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자본주의적 규율체제를 사회전반에 확산시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인데, 이 때 감옥이 그러한 관료적 사회통제의 한 축으로 중요하게 기능했다고 행정사가(行刑史家)들은 설명한다.

결국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오자 감옥의 정치경제적 기능은 종전의 노동력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하게 사회통제기제로서의 역할로 옮겨 간 셈인데,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더 이상 기반사회가 감옥 내의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게 된 저간의 사정도 자리잡고 있었다. 즉, 산업혁명이 성공하면서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였고, 감옥 밖 노동시장의 노동력도 썩졌기 때문에 굳이 감옥 내의 노동력에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덧붙여 노동시장에서는 끊임없이 감옥 내에서의 생산노동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감옥 내의 노동력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하락을 압박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어쨌든 이러저러한 사정의 변화로 말미암아 18세기의 감옥은 사회 내에서의 정치경제적 기능을 노동력 공급의 측면에서 통제기제적 측면으로 이동시킨다.²²⁾

이렇게 감옥이 사회통제 기제로서 역할하는 상황은 푸코(Foucault)의 「감시와 처벌」에서 예리하게 분석되는데, 그는 소위 '규율(Discipline)'이라는 자본주의 권력계급의 통제기제가 감옥을 통해 생산되고 실험되며 확산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벤담이 고안했다는 판옵티콘(Panopticon) 통제시스템에 대한 그의 의미부여는 산업자본주의 체제의 사회통제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즉, 감시하는 측과 감시당하는 측을 연결짓는 '보고 보이는

21) 이러한 차원에서 Tove Stang Dahl은 이 시기의 사회통제 형태를 공식화(formalization), 집중화, 합리화로 특징짓기도 한다(Tove Stang Dahl, "State Intervention and Social Control in 19C Europe", Contemporary Crisis, 1977/1, pp. 163-164 참조).

22) 쿠테와 키르흐하이머도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성공하면서 감옥 밖 노동시장의 임금이 하락하자, 감옥 내 수인들에게도 생산적 노동보다는 규율의 강제를 위한 몸놀림이 부과되었다고 설명한다. 참고로 그들의 말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하층민들은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고, 노동시장에서 서로가 서로의 임금을 하락시켰다. 이제는 노동을 시키기 위한 강제적 조치는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감옥은 더 이상 이윤남는 장사가 아니었다. 노동시장의 임금이 높을 때에는 감옥은 많은 이윤을 얻기 주었지만, 이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만으로도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게끔 된 상황 하에서는 감옥에서의 노동은 감옥 운영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차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여 형법은 다시금 가혹했던 옛날 시대의 그것으로 되돌아 갔다. 강제로 일을 시키는 기관인 감화원(penitentiary)은 체형(torture)을 실행하는 장소로 바뀌어 갔고, 사회내의 가장 비참한 자들까지도 꺼리는 장소가 되어 갔다. 수인들은 옷조차 제대로 입지 못했으며, 과일수용되었다. 수인들에게 부과되는 노동은 비생산적인 것이었고, 차라리 그 자체가 체형(torture)이었다. 예를 들어 아무 목적없이 돌무더기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거나, 펌프를 돌려서 물을 반대로 흐르게 한다거나, 트레드 밀(treadmill)을 돌리게 하는 따위의 일들이 수인들에게 부과된 것이다." (Rusche and Kirchheimer, op. cit., pp. 14-15)

선'의 한 쪽을 끊어버림으로써, 감시하는 측만이 모든 정보를 알게 하면 물자·인원·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자동적이고 지속적인 감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옵티콘 통제원리의 중심에 감옥이 서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산업자본주의 체제의 사회통제원리인 판옵티콘 시스템을 공급하는 병참기지로서 감옥이 역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²³⁾

아울러 이렇게 감옥의 기능이 16세기의 순수 경제적 차원에서 18세기의 사회통제 기제로서의 역할로 옮겨가게 되는 과정은 멜로시(Melossi)에 의해서도 분석되는데, 그의 설명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Melossi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산업예비군의 발생 및 빈곤과 범죄의 증가는 산업혁명기의 특색이었다. 그러나 노동계급 조직은 미성숙한 상태였으므로 당시의 계급전쟁은 주로 폭력적이고 개인적인 해결, 즉 범죄의 영역에서 수행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는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사상 최악의 상태를 야기했으며, 대중은 구결, 절도, 폭력, 산적, 기타 원시적 형태의 계급투쟁이 길로 내몰렸던 것이다. 또한 당시의 노동시장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부르주아 정치기관들은 더 이상 자유노동자의 임금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강제노동에 의지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 강제된 노동자들을 공장노동자로 훈련, 복귀시킬 필요도 없었다. 그리하여 유럽에 있어서의 감옥의 기능은 점차 테러와 직접적인 사회통제에로 편중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감옥내의 조직, 운영원리도 이러한 새로운 기능의 수행에 알맞는 Panopticon의 원리를 채택하게 되었다. Panopticon의 원리는 감옥내 생산적 노동에는 적합하지 않지만(왜냐하면 독거구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감, 감시, 통제를 위하여는 꽤 효율적이었다.”²⁴⁾

IV.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감옥

1. 감옥에서 교도소로

범죄인 개선의 사상은 이미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18세기의 감옥체계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적 교정행형이 성립하게 된 것은 19세기 말 실증주의 범죄학이 대두하게 되면서부터이고, 그것의 제도화는 1870년 미국의 국가감옥협회(The National Prison Association)가 교정주의에 입각하여 분류제도, 부정기형, 직업교육, 공장교육, 상벌제도, 감옥 건축물 개조 등을 포함한 전면적 개혁원칙을 선언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²⁵⁾ 아울러 동 위원

23) M.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Sheridan, A. (trans.), *Discipline and Punish*, Vintage Books, 1979 참조. 아울러 이렇게 푸코가 분석한 규율체계는 자본주의 체제의 통제기제로서의 차원을 넘어서서 일상적인 '생활기계(mechanism of life)'로 깊숙히 스며들었다고 설명되기도 한다(Dany Lacombe, "Reforming Foucault: a critique of the social control thesi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47 No. 2, June 1996, pp. 332-352 참조).

24) Melossi D. and M. Pavarini, op. cit., pp. 57-58

25) 동 개혁원칙의 내용 중 중요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행형처우의 목적은 교도부가 아니라 수인의 개

회의 개혁원칙에 입각하여 설립된 최초의 감옥이 1876년에 문을 연 뉴욕의 엘마이라 교도소(Elmira Reformatory)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현대적 교정행형의 전형적 프로그램인 부정기형, 가석방, 누진처우 등이 시행되었다.

이후 교정행형은 유럽에도 확산되어 1890년대에 들어와 영국에서는 글래드스톤(Gladstone)이 감옥을 교도소(reformatory)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1908년에는 분류제와 부정기형 등을 도입한 보스탈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른다.²⁶⁾ 아울러 독일에서도 1923년에 행형의 기본원칙을 발표하여 개선과 재사회화를 행형목표로 설정하였고, 그와 동시에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을 제정하여 소년행형을 교도적 차원에서 새롭게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20세기 선진제국의 감옥제도는 교도행형을 중심근간으로 하였으며, 미국의 연방감옥과 캘리포니아, 위스콘신 등 몇몇 주의 감옥은 교정적 행형정책에 입각한 프로그램을 완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로 평가받은 바 있다.

2. 교도소의 정치경제적 기능

1890년대부터 20세기 전반부에 이르는 동안 자본주의 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그 변화의 중심은 경제구조의 변화에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발전을 의미한다. 첫째, 공장 내부에서의 고정자본의 절대적, 상대적 분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자본주의 권위의 많은 부분을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기계의 역할 속에 이동시켰다. 둘째, 자본이 집중되어 독점, 혹은 과점의 생산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곧 종래 생산과정의 영역에만 한정되던 자본의 지배범위가 이제는 유통과 소비의 영역에까지 진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가격의 결정, 시장조직 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직접적인 자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종래의 사회통제수단의 기능에 대해서도 위기를 초래하였다. 즉,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중요한 영역이 위와 같이 이동함에 따라 종래의 사회통제 수단만으로는 사회의 변화에 걸맞는 효과적인 사회통제를 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사회통제수단이 새롭게 고안되는 바, 먼저 생산영역에서는 기계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노동자의 행동은 기계구조의 한 부분으로 취급, 작동되고 종래의 판옵티콘적 규율체계는 기계의 고안과 작동의 과정에서 새롭게 수립된다. 또한 생산영역 밖의 사회에서는 선전이라든가 매스미디어 등을 동원하여 행하는 새롭고 보다 효율적인 사회감시체제가 고안된다. 아울

성이어야 한다. ② 실행에 대해서는 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수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운명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정기형은 부정기형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⑤ 산업훈련을 위해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Norman A. Carlson, et. als., Corrections in 21th Century, Wadsworth, 1999, pp. 74-75 참조).

26) 당시의 보스탈제도는 16세부터 21세까지의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그 중간에 감옥위원회(The Prison Commission)의 결정으로 석방하도록 하는 형태였다(Sean McConville, "The Victorian Prison, England 1865-1965, in Noval Morris & David J. Rothman, The Oxford History of the Pris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 141-144 참조).

러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만드는 데, 이러한 복잡한 사회통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 보다는 국가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여 20세기 들어와 국가를 중심으로 행해진 사회통제는 종래의 판옵티콘적 규율체계와는 판이하게 다른 방법을 취한다. 즉, 대상자가 국가의 감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믿도록 한다. 설사 그것의 존재를 인식한다 하여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행사되는 방법은 전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20세기적 통제의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시체계는 판옵티콘이 아니라 보다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통제체계임을 뜻하게 된다.

그러면 종래의 판옵티콘 체계를 대신하여 20세기의 국가가 사용하는 통제체계의 핵심내용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파인(Fine)은 과학화(scientification)와 정당화(justification)라는 지표를 제시한다. 즉,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통제를 위해 전문화된 과학이 등장하고 온갖 과학적 산물들이 사용되었으며, 국가는 사회통제의 정당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감옥도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과학화, 정당화에 가장 부응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바,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교도소로의 탈바꿈이라는 설명이다. 즉, 20세기에 들어와 교도소는 범죄인의 교정이라는 일반이익적(一般利益的)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지배계급의 권력행사를 가장 신비한 형태로 매개함으로써 보다 고차적인 사회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20세기의 교도소는 사회통제기제로서의 역할은 그대로 수행하되, 그것을 교정주의라는 명분 뒤에 적절히 숨기고 물신화(物神化)된 권력을 정당화·합리화시키는 기지(基地)로서의 역할을 실행해 왔다 할 것이다.²⁷⁾

V. 맺는 말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감옥의 정치경제적 기능을 역사적으로 정리하였는 바, 최근 들어서는 많은 문헌들이 소위 '감옥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위기의 골자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과밀수용으로 빚어진 위기(crowding crisis)이고, 둘째는 감옥에 대한 관념

27) Fine에 의하면, 형벌제도는 일정한 역사발전 단계에서 일련의 사회관계를 표현하는 권력의 양식(the modality of power)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바, 20세기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교도소의 특징은 권력의 물신화된 성격(fetishized character)에 있다고 한다. 즉,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는 지배의 형태가 주인과 노예의 관계, 혹은 영주와 농노의 관계와 같이, 있는 그대로의 직접적 형태로 나타났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이 일반이익(general interest)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외양을 통해 매개되고, 교도소는 그러한 변용된 권력체계를 유지·행사되게 해주는 실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B. Fine, "The Birth of Bourgeois Punishment", Crime and Social Justice, Summer 1980, p. 26 참조).

(conscience)이 처한 위기이다.²⁸⁾ 전자에서는 상승하는 경비의 조달과 수인관리의 어려움이 현실적인 문제상황으로 제기되고, 후자는 교정주의라는 20세기의 감옥 목표가 공공으로부터 불신당하면서 빚어진 목표상실이 문제로 부각된다. 그리하여 그에 대해 이런 저런 방책이 제시되지만, 아직 뚜렷한 갈 길이 찾아지지 않은 것이 현금의 상황인 것 같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감옥이 기반사회에 대해 갖는 정치경제적 기능을 간단히 요약해 보았다. 이를 통해 21세기 사회가 감옥에게 부여할 나름의 기능이 무엇일지 추론할 밑바탕을 마련해보고자 한 것인데, 이에 대한 해답은 다음의 글로 미루기로 한다.

28) Francis T. Cullen, et. als., "Prisons in Crisis : The American Experience", in Roger Matthews and Peter Francis (eds.), Prison 2000, St. Martin's Press, 1996, p. 21 참조.

《參考文獻》

- 박상기,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 Anthony Babington, *The English Bastile : A History of Newgate Gaol and Prison Conditions in Briton 1188-1902*, New York, 1971
- Dany Lacombe, "Reforming Foucault : a critique of the social control thesi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47 No. 2, June 1996
- David J. Rothman, "Perfecting the Prison, United States, 1789-1865", in Noval Morris & David J. Rothman, *The Oxford History of the Pris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Edward M. Peters, "Prison Before the Prison -The Acient and Medival Worlds", in Noval Morris and David J. Rothman (eds.), *The Oxford History of the Pris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Eric Stockdale, "John Howard and Bedford Prison", in John C. Freeman (ed.), *Prison Past and Future*, London, 1978
- Fine, B., "The Birth of Bougeois Punishment", *Crime and Social Justice*, Summer 1980
- Foucault, M., *Surveller et punir*, Sheridan, A. (trans.), *Discipline and Punish*, Vintage Books, 1979
- Francis T. Cullen, et. als., "Prisons in Crisis : The American Experience", in Roger Matthews and Peter Francis (eds.), *Prison 2000*, St. Martin's Press, 1996
- James B. Jacobs, "Macrosociology and Imprisonment", in David F. Greenberg(ed.), *Correction and Punishment*, London, 1977
- Melossi, D. and M. Pavarini, *The Prison and the Factory*, London, 1981
- Michael Ignatieff, *A Just Measure of Pai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 Norman A. Carlson, et. als., *Corrections in 21th Century*, Wadsworth, 1999
- Pashukanis, E. B., *Law and Marxism : A General Theory*, London, 1978
- Ralph B. Pugh, "Imprisonment in Medieval England", in John Bellamy, *Crime and Public Order in England in Later Middle Ages*, Routledge and Kegan Paul, 1973
- Rusche G. and O. Kirchheimer, *Punishment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1968
- Scott Christianson, *With Liberty for Some*,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8
- Sean McConville, "The Victororian Prison, England 1865-1965, in Noval Morris & David J. Rothman, *The Oxford History of the Pris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Tove Stang Dahl, "State Intervention and Social Control in 19C Europe", *Contemporary*

Crisis, 1977/1

Vivien Stern, A Sin against the Future : Imprisonment in the World,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8

Abstracts

The Social Function of the Prison in the Capitalistic Country

Lee, Seung Ho

(Department of Law, College of Law, Konkuk University)

In the popular thoughts, prisons appear so intrinsic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it is prone to think of them as everlasting and fixed institutions of our society. But they have a history and have been marked by unusual changes. They began with the rise of capitalism in the sixteenth century and then contributed to the primitive accumulation of capital through the labor of inmates.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prison underwent fundamental alterations in the organization and role. First, it isolated each inmate in a cell and enforced rules of total silence. In addition, the social function of the prison was changed to the mechanism of discipline. By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ideal of rehabilitation was introduced into the prison and hence reformed it's system on a large scale. The prison afforded inmates the programs of education and job training, also, molded itself on the outside community. But it has lasted the essential function of social control, though its strategy has been changed.